



‘최고의 시즌’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빅4’

영국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 4위 정규리그서만 17골 10도움 활약 공격포인트 휩쓴 동료 케인 1위 황의조는 프랑스 리그1 94위

올 시즌 새로운 개인 기록을 쏟아내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흥민(29·토트넘·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파워랭킹 4위에 올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럽 5대 리그(영국 EPL·독일 분데스리가·스페인 라리가·이탈리아 세리에A·프랑스 리그1)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스코틀랜드 1부) 2020-2021시즌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은 EPL 4위에 랭크됐다.

파워랭킹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수들의 활약을 점수를 매기는 순위표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EPL 523명 중 네 번째로 높은 6만 8142점을 받았다. 그는 이번 시즌 득점에서 패트릭 베퍼드(리즈 유나이티드)와 함께 리그 공동 4위에 올랐고, 도움에서도 잭 그릴리시(에스턴 발라)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공격포인트 부문에서는 27개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리그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자신이 2016-2017시즌에 작성한 리그 한 시즌 최다 골(14골)보다 3골을 더 넣으며 새 기록을 썼고, 토트넘 구단 소속 최초로 두 시즌 연속 EPL 10골-10도움을 달성했다. 더불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한

국 선수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17골)에 타이를 이뤘다. 시즌 전체로는 공식전 51경기에서 22골 17도움을 올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도 갈아치웠다. EPL 파워랭킹 1위는 손흥민의 ‘단짝’이자 올 시즌 리그 최다 득점(23골)과 최다 도움(14개), 최다 공격포인트(37개), 최다 슈팅(129회)까지 휩쓴 해리 케인(토트넘)이 차지했다. 케인은 8만673점으로 독보적인 1위를 지켰고, 토마스 슈책(7만2971점·웨스트햄)과 브루누 페르난데스(7만613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뒤를 이었다. 살라흐는 6만 527점으로 5위에 위치했다. 한편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29)는 3만1751점을 받아 리그1 랭킹 94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르도로 이적한 2019-2020시즌 6골(2도움)을 넣은 황의조는 이번 시즌 리그1 36경기에서 12골(3도움)을 터트리며 자신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남겼다. 그는 2010-2011시즌 AS 모나코에서 ‘한국인 리그1 한 시즌 최다 득점’(12골) 기록을 쓴 박주영(FC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리그1에서는 올랭피크 리옹의 뎀피스 데파이가 7만3863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 밖에 세리에A에서는 로멜루 루카쿠(7만 3951점·인터밀란)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7만 2292점)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고, 라리가에서는 11만3742점을 받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분데스리가에서는 8만9092점을 받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한국선수단 23개 종목 186명 출전권 획득

추가 티켓 확보 막바지 총력

7월 23일 막을 올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출전권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쏟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을 58일 앞둔 26일 현재 23개 종목, 85개 세부 경기에서 186명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달 14일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두고 집계한 19개 종목, 62부 경기에서 160장을 확보한 것보다 26장이 늘었다. 4~5월에만 제2의 박태환으로 불리는 수영 경영 자유형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27), 수영 다이빙, 탁구 남녀 혼합복식 등이 출전권을 보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종목별 국제연맹(IF) 등과 협의해 올해 6월 29일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 예선 대회를 끝내기로 했다.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최종 엔트리는 7월 5일 마감한다. 도쿄올림픽에서는 33개 정식 종목이 열리고, 339개 세부 경기에 금메달이 걸려 있다.



지난달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도쿄올림픽대회 G-100 미디어데이에서 태권도 이대훈 등 선수들이 단복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회는 6월 말까지 출전권을 더 따내면 200~210명의 태극 전사가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회는 세계 예선전 직후인 6월 29일 이후 경

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해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엔트리를 확정한다. 한국선수단 결단식은 7월 8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의 올림픽 홀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17골 넣은 홀란이 시즌 MVP라고?

반대 여론 불붙...“41골 새 역사 쓴 레반도프스키 상 강탈 당했다”

독일 프로축구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1·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이 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쓴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3·바이에른 뮌헨)를 제치고 분데스리가 최우수선수로 뽑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홀란은 26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2020-2021시즌 분데스리가 ‘올 시즌의 선수’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의 선수는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해당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팬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홀란은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이는 나 혼자 아닌 도르트문트 가족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소감을 적었다. 분데스리가 공식 트위터나 홈페이지에는 아직 홀란의 수상 소식이 올라오지 않은 가운데, 홀란의 트윗에는 축하 댓글보다 그의 수상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많은 팬이 “레반도프스키가 상을 강탈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바보 같은 팬 투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릇된 결과가 나왔다”며 사무국을 비판하는 팬도 있었다. 홀란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27골을 넣었고, 다른 대회까지 더해 공식전 총 41골을 기록했다. 반면에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에서만 41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에서 2위(28골) 안드레 실바(프랑크푸르트)를 큰 격차로 제쳤다. 홀란은 3위에 자리했다. 게다가 레반도프스키의 41골은 게르트 뮐러(40골)가 보유했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49년 만에 갈아치운 대기록이다. 기록을 완성하는 장면도 극적이었다. 시즌 마지막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41번째 골을 쏘아 새 역사를 썼다. 팀 성적에서도 레반도프스키의 뮌헨이 우위에 있다. 뮌헨은 리그 9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홀란의 소속팀 도르트문트는 3위에 자리했다. 홀란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와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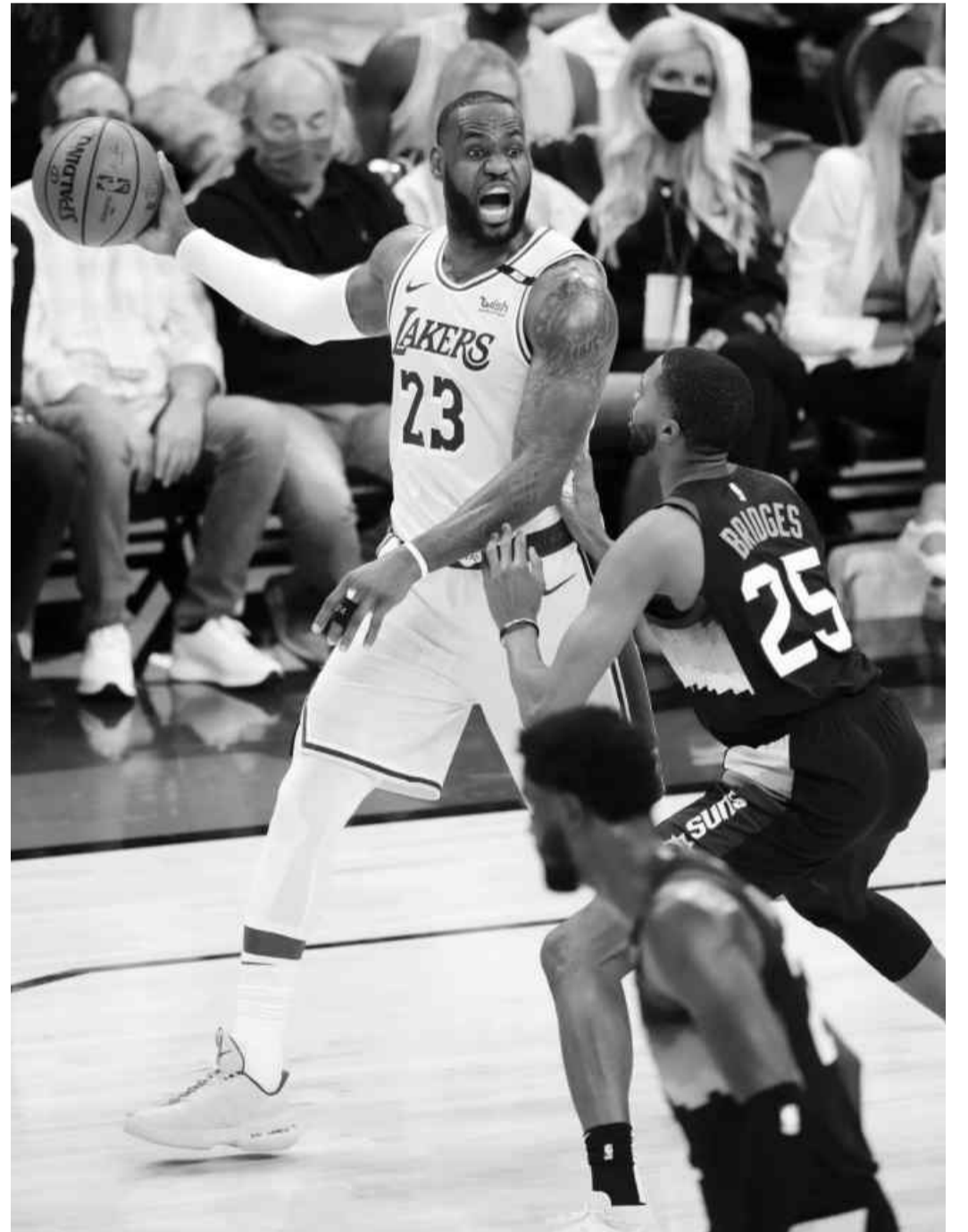


수상 소식 전하는 홀란. <홀란 트위터 캡처> 짜 최우수선수상을 받아라”라고 적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맨유를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 첼시(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등 빅클럽이 홀란 영입전에 나섰다.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2년간 경쟁력을 입증한 홀란의 이적료는 1억5000만 유로(약 2000억원)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7골 폭발’ 광주-수원전 18라운드 베스트 매치

3개의 페널티킥, 7골이 나온 광주FC와 수원삼성의 경기 K리그1 18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6일 K리그1 18라운드 6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트리며 대구 FC의 8경기 연속 무패를 이끈 세장야가 18라운드 MVP에 선정됐고, 지난 2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와 수원의 경기가 최고의 경기가 됐다. 전반 6분 광주 한희훈의 골로 시작된 경기는 15분 수원 김민우의 골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2

분과 12분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 주고받은 두 팀. 후반 38분 수원 김건희가 이날 경기의 5번째 골을 장식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광주가 두 번째 페널티킥을 얻어 김중우의 골로 3-3을 만들었지만 이어진 수원의 마지막 공격 때 나온 이기제의 프리킥골에, 3-4 패를 기록했다. 광주를 상대로 4골을 몰아넣으며 7경기 연속 무패를 이룬 수원은 베스트팀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 공 받을 사람!” 26일 열린 LA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스의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2화전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상대팀 선수를 앞에 두고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파이프라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비와 당신의 이야기
4관	파이프라인
5관	크루엘라, 파이프라인
6관	크루엘라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챔피
7관	씨네커를 크루엘라, 보이저스, 애플
8관	씨네커를 도라에몽: 스텐비미 2,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비색의 단환 링: 더 라스트 챔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